



22142283



KOREAN B – STANDARD LEVEL – PAPER 1
CORÉEN B – NIVEAU MOYEN – ÉPREUVE 1
COREANO B – NIVEL MEDIO – PRUEBA 1

Tuesday 13 May 2014 (morning)
Mardi 13 mai 2014 (matin)
Martes 13 de mayo de 2014 (mañana)

1 h 30 m

TEXT BOOKLET – INSTRUCTIONS TO CANDIDATES

- Do not open this booklet until instructed to do so.
- This booklet contains all of the texts required for paper 1.
- Answer the questions in the question and answer booklet provided.

LIVRET DE TEXTES – INSTRUCTIONS DESTINÉES AUX CANDIDATS

- N'ouvrez pas ce livret avant d'y être autorisé(e).
- Ce livret contient tous les textes nécessaires à l'épreuve 1.
- Répondez à toutes les questions dans le livret de questions et réponses fourni.

CUADERNO DE TEXTOS – INSTRUCCIONES PARA LOS ALUMNOS

- No abra este cuaderno hasta que se lo autoricen.
- Este cuaderno contiene todos los textos para la prueba 1.
- Conteste todas las preguntas en el cuaderno de preguntas y respuestas.

본문 A

제 18회 서울 환경 작품 공모전

2013. 2. 1 ~ 4. 30

- 공모주제: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생산”
- 공모소재:
 -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는 작품
 - 태양광, 지열, 풍력 등 친환경에너지 생산
 - 친환경에너지 도시 서울을 잘 표현한 작품
- 공모부문: 사진, 포스터, 일러스트레이션, UCC*
- 공모자격: 전국대상

사 진	: 중.고등부, 일반부
포스터	: 고등부, 중등부, 초등부
일러스트레이션	: 중학생 이상
UCC	: 중학생 이상 (4명이내로 공동출품 제한)
- 공모기간: 2013.2.1 (금) ~ 4.30 (화) (접수기간: 2013.3.4 ~ 4.30)

원전 하나 줄이기란? 시민과 함께 에너지를 절약하고 태양광등 친환경에너지 생산을 확대하여 원자력 발전소 1기가 생산하는 만큼의 에너지를 대체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서울시 에너지 정책입니다.

- 접수 홈페이지: www.seoul.go.kr에서 서울환경작품 공모전 배너 클릭 또는 wow.seoul.go.kr에서 접수
- 주 소: (우100-739)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 환경정책과
 - 신청서양식, 작품규격 및 제출방법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입상작 발표: 2013. 5. 20 (월) (시상식: 2013. 6. 5 환경의 날 예정)
- 시상내역: 대상 6명, 최우수상 9명, 우수상 42명, 장려상 33명 총 90명
- 문의: ☎ 120 다산콜센터, (02) 2133-3535
- 주최: ♡ 서울특별시

<서울 특별시> 2013

* UCC는 User Created Contents의 줄임말입니다. 주로 동영상을 말합니다

본문 B

대전시교육청, 동부 다문화 교육 센터 이중 언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① 대전시교육청은 동부 다문화 교육센터와 연계해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이중 언어 교육의 일환으로 “씽씽씽 (Sing Sing Sing) 신나는 중국어 노래 교실”을 6월까지 매주 토요일 총 10회 운영한다.

② 이 프로그램은 중국어 동요를 통해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어머니 나라의 언어를 배움으로써, 다문화에 대한 경험과 함께 자신의 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동요를 통한 이중 언어 학습은 즐거움을 바탕으로 중국어 학습에 대한 긍정적 학습태도와 이중 언어 학습력 신장에도 도움을 주게 된다.



③ 이번 이중 언어 프로그램은 총 10회에 걸쳐 각 회기마다 다양한 주제로 중국어 학습 기회를 준다. 4월 6일 개강일에는 “봄” 이이라는 주제로 계절의 변화에 대해 배워 보며 주변 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봄꽃 이름도 중국어로 배워보며 학생들이 흥미 있게 수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④ 중국 출신의 학부모는 “이번 수업을 통해 아이가 어머니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⑤ “씽씽씽 (Sing Sing Sing) 신나는 중국어 노래 교실”은 각 학교에 중국어 전문 강사가 찾아가 진행되는 형태와 동부 다문화 교육센터에서 진행되는 형태로, 선정되지 않은 학교의 학생도 동부 다문화 교육센터 방문 시 참여가 가능하다. 이 프로그램은 하반기에도 진행될 예정으로 관심 있는 학교의 신청을 받고 있다.

⑥ 동부다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 및 신청은 전화 (042-253-7588~9,7591), 홈페이지 게시판 (<http://office.dju.ac.kr/dasarang>) 또는 이메일 (dasarang7588@hanmail.net) 로 하면 된다.

<뉴스온코리아> 2013

본문 C

<지식채널e> 1000회 ... 교육 다큐의 새 장 열다



- ① 교육방송 (EBS)의 대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은 <지식채널e>가 1000회를 맞았다. <지식채널e>는 30일 1000회를 맞아 특집 방송을 내보냈다.
- ② 2005년 9월 처음 방송된 <지식채널e>는 애초 프로 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의 공백을 메우는 소박한 의도로 기획됐다. 그러나 과격적 형식과 정제된 내용으로 주목받아 교육방송의 “대표 브랜드”가 됐고, 7년 8개월 만에 1000회를 넘기게 됐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나 기업, 관공서, 시민단체 등에서 교육 자료로도 쓰이고, 방송 내용을 담아 펴낸 단행본은 누적 판매 부수 100만부를 돌파했다.
- ③ 처음 <지식채널e>를 만든 한송희 피디는 프로그램이 성공한 것은 “교육 콘텐츠가 어때야 하는지 그 지향점을 뚜렷하게 보여줬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지식채널e>에 대해 “지식 저널리즘을 구현했다”, “사회적 발언대 구실을 했다”, “새로운 형식미를 만들었다” 와 같은 다양한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지식채널e>의 의미는 무엇보다도 교육방송이 지향해야 할 “교육 콘텐츠” 의 모범이 되는 본보기를 만들었다는 데 있다는 것이다.
- ④ 한 피디는 “<지식채널e>는 정확한 정보 전달에 기반해 시청자들에게 화두를 던지는 구실을 해왔다” 며 “이것이야말로 지식·기술·가치를 아우르는 교육의 본령” 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그는 “<지식채널e>는 교육방송의 성장과 함께 갈 것이며, 앞으로 만 회, 10만 회까지도 갈 것” 이라고 내다봤다. 또 영상매체와 인쇄매체의 장점만을 살린 형식과 시청자들의 감성에 호소하는 접근도 <지식채널e>의 성과로 꼽았다.
- ⑤ <지식채널e>가 초창기보다 신선함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많은 관심을 받다 보니 “외풍” 논란도 없지 않았다. 광우병 문제를 다룬 “17년 후” 편이 지연 방송돼 “외압”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일이 대표적이다. 한 피디는 ““정파성”을 내세워 프로그램을 재단하려는 시도가 가장 우려된다” 고 말했다. 특정한 가치관이나 입장을 두둔하지 않는데도, 과도한 정치적 해석을 통해 프로그램을 흔들려는 시도가 꾸준히 있어왔다는 것이다. [...]
- ⑥ <지식채널e> 제작진은 1000회를 기념해 5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UCC* 공모전을 연다. 시청자들이 환경, 평화, 인권, 나눔 등 “세상을 바꾸는 작은 힘”을 주제로 삼아 5분 이내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응모하는 행사다.

<한겨레> 2013

* UCC는 User Created Contents의 줄임말입니다. 주로 동영상을 말합니다

본문 D

전통에 뿌리 둔 예술 모국어 찾기, 한국의 클래식을 꿈꾸다

- ① 미국 LA 다저스 경기장 스크린에 가득 비춰졌던 싸이(PSY)의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미국 땅에서 한국 가수가 공연을 한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동양인 가수에게 환호성을 보내는 미국인들의 모습이 참 새로웠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한국 대중음악은 K-pop 진출의 성공을 알렸는데, 대중음악 뿐 아니라 클래식 음악계에도 변화가 일고 있어 알아보았습니다.
- ② 우리나라 대중음악이 독특한 색으로 해외무대에도 성공했듯 클래식도 그러한 우리만의 독특한 색이 있지 않겠냐는 목소리가 하나 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지금껏 한국 클래식계의 사정은 해외시장에 진출할 만큼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해외에서 동양 연주자를 찾는 일은 드물기 때문이었죠. 또한 한국은 클래식을 선보일 자리가 많지 않았습니다. 유럽 땅에 나갈 수도 없고 우리나라 땅에 자리 잡기도 힘들었던 음악인들은 K-pop에서 영감을 얻어 한국의 클래식은 어떤 소리를 낼 수 있는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 ③ 새로운 길을 개척해보자는 생각이 모여 K-classic 즉, 한국의 클래식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대중음악에 K-pop이 있다면 실내악에는 K-classic이 있다는 당찬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지요. 음악인들은 바이올린으로 아리랑 산조를 연주하고 해금으로 모차르트 교향곡을 연주하며 점차 대중적인 클래식 음악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 ④ 국내 클래식계는 2012년 10월 양평에서 K-classic Music Festival을 개최하여 이전에는 없었던 음악을 대중들 앞에 소개하고 그들의 반응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페스티벌에서 보여준 클래식 음악은 국악과 양악을 넘나드는 음악 패턴으로 대중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줬습니다. 이전에는 접해보지 못한 음악이라며, K-classic의 “새로움”에 대해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지요.
- ⑤ 여러분들은 반도네온이라는 악기를 들어보셨나요. 반도네온은 아르헨티나 탱고 연주에 사용되는 소형 손풍금인데 최근에는 아르헨티나 전통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음악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도네온이 아르헨티나에서만 연주되었다면 우리가 이 악기의 독특한 음색을 즐길 수 없었겠지요?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서양 거장들의 음악, 피아노로 연주하는 국악으로 인해 우리 음악과 우리 악기가 세계인의 가슴을 울리게 될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문화부 놀이터> 2013

* 아리랑 산조는 한국의 전통 곡이고 해금은 한국의 전통 악기입니다